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9월 17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에 대한 고용 우선 정책 확립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에게 첫 번째 옵션을 만드는 뉴욕 고용 우선 정책을 만드는 임무를 고용 우선 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빈곤율을 낮추고 또한 그들의 인력 전략의 일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공식적인 정책을 가진 회사 100개를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포용성이 뉴욕 주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오늘 우리가 장애인의 고용 요구에 서서 해당 유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뉴요커로서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전달하며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이 서명으로 우리 주가 전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용 우선 정책은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의 일부입니다. 18세에서 64세의 장애를 가진 뉴요커의 고용률은 31.2%로 장애가 없는 사람의 고용률인 72%에 비해 40.8% 포인트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18-64세 장애를 가진 뉴요커들의 빈곤율은 28.6%로 장애가 없는 사람의 빈곤율인 12.3%의 두 배 이상입니다. 주지사는 이 인구에서 고용률을 5% 증가하고 빈곤율을 5% 감소시키려는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연구 "장애 성인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최근 평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노력 및 정책의 검토" 연구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취업률은 개인, 가족 및 거시 경제에 부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자부심은 낮아지고, 고용주들에게는 자격을 갖춘 인재들의 풀이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여 사회 집계 생산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장애를 가진 노동 연령의 사람들의 고용을 증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각각 반전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 자립 생활 센터 전무 이사 Brad Williams는 “우리는 장애를 가진 뉴요커의 중요한 문제에 지도력을 보여준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고용 우선 행정 명령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고용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제공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신 재활 서비스 뉴욕 협회 전무 이사 Harvey Rosenthal은 “장애를 가진 뉴요커에 대한 고용은 빈곤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서 삶을 실현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와 전국 장애 정책에 대한 방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인 스트림 고용 프로그램 연합 대표 Edmund O’Donnell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뉴욕 주에서 우선 순위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실업 및 동반되는 빈곤은 독립성과 존엄성의 삶을 붙잡는 요소입니다. 고용주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주지사는 그의 지원과 옹호에 대해 칭찬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 재활 협회 대표 겸 CEO인 Michael Seereiter는 “NYSRA이 최근 발행한 백서 “Getting the Job Done”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고용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우리는 전례가 없는 임원의 리더십의 수행에 대해 주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지사가 윤곽을 그린 고용 우선 위원회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훌륭한 단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 정책 감독의 권익 옹호 협회 및 권익 옹호 리더 Clint Perrin는 “뉴욕 주의 자기 옹호 협회는 주지사의 고용 우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발달 장애를 가진 모든 뉴요커들이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작업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또한 자원 봉사 및 지역 사회 서비스, 교육 및 직업을 추구,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연결로 이어질 다른 의미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사회 행동 건강을 위한 NYS 위원회 전무 이사 Lauri Cole은 “지역 사회 행동 건강을 위한 뉴욕 주 위원회는 이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는 주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뉴요커들도 지역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의 감각을 향상 시키는 의미 있는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와 모든 시스템의 이해 관계자와 함께 서서 신체적 혹은 행동 건강 상태를 가지고 사는 뉴요커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중요한 노력에 대해 정부와 함께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립 생활 뉴욕 협회 전무 이사 Lindsay Miller는 “자립 생활 뉴욕 협회는 Cuomo 주지사의 고용 우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품질과 통합 고용에 대한 접근은 모든 개인에 대한 독립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행정 명령은 장애를 가진 뉴요커들이 직면한 오래된 고용 장벽 해결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및 고용 전문가 뉴욕 협회의 전무 이사 Melinda Mack은 "우리는 장애를 가진 뉴요커들에게 고용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Cuomo 주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건강, 웰빙 및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 전역에 걸쳐 인력 위원회 및 공급 업체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뉴요커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의 인력 시스템을 통해 주의 고용주들이 고용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udson Valley의 자립 생활 센터, Inc.(Independent Living Center of the Hudson Valley, Inc.) 전무 이사 Denise Figueroa는 "우리는 장애를 가진 뉴요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Cuomo 주지사의 지도력에 감사를 보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보호 집단 중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은 경제적 자유의 열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evelopmental Disabilities Alliance of Western New York of People, Inc. 의 대표이자 COO인 Rhonda Frederick은 "우리는 서부 뉴욕의 우리의 기업 지역 사회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그들의 최고 직원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충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서부 뉴욕과 뉴욕 주에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의 노력으로 Cuomo 주지사는 다시 한번 이 위원회를 만들어 더 많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역 사회와 주의 기업들이 그들이 인력과 우리 경제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 우선 위원회는 주지사의 사무실과 주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장애인 봉사에 뉴욕의 리더십 역할을 회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종합 계획을 구축할 것입니다. 2011년부터 근본적인 변화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통합되고 성취적인 삶을 살도록 돕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통합으로의 근본적인 구성으로 경쟁적 통합 고용을 우선시하는 주의 Olmstead 계획을 포함합니다. 주 메디 케이스 재설계 노력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고용 결과에 집중하며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정의 센터의 설립과 뉴욕의 장애를 입은 재향 군인 소유의 기업 법은 올해 초 법률로 서명되었습니다. 또한, 주에서는 장애를 가진 개인 및 재향 군인을 고용하는 주지사의 프로그램을 설립하였고, 이는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대안적인 고용 프로그램으로 올해 설립한 새로운 채용 리소스 센터 웹 사이트를 포함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오늘의 조치는 현재 교육, 훈련 및 고용 시회를 개선하고 있는 뉴욕 주 장애 고용 사업을 강화하고 실업, 불완전 고용자 혹은 사회 보장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성인들에게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와 지역 수준에서 구현된 자산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개인, 고용주,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사회 보장국의 업무 프로그램의 티켓 하에서 고용 네트워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은 미국 노동 고용 및 훈련 관리국과 장애 고용 정책 사무실에 의해 공동 투자되고 관리됩니다.

이 행정 명령은 또한 뉴욕 주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을 통해 거의 3년 동안 종사한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날, 거의 만 명의 개인이 지원 고용에 등록하였고 7,800은 경쟁 고용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Korean

현재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이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사회 설정에서의 경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장애인을 위한 직무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고용.
• 고용 전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서비스이며 통합된 지역 사회 직업 경험에 참여하고 직업 및 경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고용으로의 통로.
•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업 경력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교실 환경에서 직업 준비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
• 자기 주도적 사람의 개별적인 목표와 능력에 따라 자신의 직원을 설계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관리하고 고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가진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옵션.
• 개인 계획 및 혜택과 작업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훈련 인증 혜택 상담으로 뉴욕 주의 네트워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고용 및 혜택 상담.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사무소의 변환 의제는 경쟁적이고 통합적인 고용 기회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설명하고 목표를 안전한 워크숍에서 통합 고용의 모델로 변환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정신 건강 사무실은 직업 서비스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보호 된 워크숍에서 자금을 재투자 및 개인이 달성과 경쟁력 있는 통합 설정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사무실은 사회 보장권을 업무 프로그램까지 확대하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공자와 수혜자를 위해 과정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미국 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이자 가장 성공적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뉴요커들에게 주류 고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들은 조정하여 장애를 가진 뉴요커들이 일하고 세금을 지불하고 경제적인 자급 자족을 달성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또한, 정신 건강의 사무실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사회 보장 작업 인센티브에 대해 정신 건강 공급자, 수혜자 및 가족에 대한 증가된 훈련.
• 뉴욕 주 노동국과 제휴하여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제공합니다.
• 장애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서비스인 PROMISE 교부금을 얻기 위해 코넬 대학과 제휴.

노동부는 조정과 더 나은 직업 재활 및 고용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 기관 내에서 인력 전략을 정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엄격한 정책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뉴욕 노동국의 노동 정책 선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 발달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만들었고 세액 공제는 6개월 이상의 전일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5천 달러 혹은 자격이 되는 임금의 15%까지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파트타임 노동자를 위해서는 2,500달러까지 혹은 자격이 되는 임금의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회사가 고용할 수 있는 숫자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용주가 궁극적으로 고용할 사람을 결정합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90년 이후 미국 장애인 법은 장애인을 고용 차별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축소되었던 "장애"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법 개정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장애인 법 및 장애인 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